

企業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最善

박운국 포천시장, 기업인 간담회에서 밝혀

포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포천시 장 초청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23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박운국 포천시시장과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100여 명의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운국 포천시장(오른쪽)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체감하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이 먼저 자율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을 향한 열린 행정을 통해 포천이 경기북부 경제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 덧붙였다. 이날 포천시는 '양분염색공단 내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수압부족, 관로파손, 출수불량, 수질오염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지 설치와 급수관 개량이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12억 원의 예산을 도비로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인들의 각종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박운국 포천시장은,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 행정절차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며, 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자리를 함께 한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高品質 축산물 브랜드肉 생산시설

'포천축협 축산물 유통사업소' 준공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포천축협 축산물 유통사업소가 포천시 신북면 가재리 254-5번지에 들어섰다.

사업소는 부지면적 2천260평 건평 581평 규모로, 육가공공장과 냉동 및 냉장 창고, 사무실, 19종 98대의 기계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14개 품목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포장육을 주로 생산하게 된다.

예산은 도비와 시비 각 8억8천만 원을 포함해 총 23억 6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1일 기준 소 20두 이상, 돼지 200두 이상을 가공처리할 수 있다.

11월23일 축산물 유통사업소 현장에서는 시와 시의회 관계자, 각 시·군 축협장, 지역농협장, 축협

임원, 축종별 대표, 양돈계열화 축산인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산농가가 정성껏 기른 균일한 품질의 원료육이 선진국형 축산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육가공장에서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육'으로 탄생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이는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또 가족 사육단계에서부터 위생 요소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축 및 가공단계에서 선진 위생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면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축협 축산물 유통사업소는 금년 12월 중에 농림부로부터 HACCP(위해 요소 증점관리 안전식품) 인증을 받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환 기자 forme65@paran.com



사태크

내 아이를 위한 금융상품 고르기

요즘 텔레비전 방송의 위력이 참으로 막강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MBC TV의 '경제야 놀자', SBS '체인지업 가계부'에 이어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KBS의 '경제비타민'의 방송이 나간 후부터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다.

2주 전 '경제야 놀자(연미 편)'에서 어린이 펀드에 대한 방송이 나간 후 이 상품에 대한 문의와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내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다는 한데 은행 이자는 너무 적고 그렇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펀드에 선택 가입하기도 못했던 어머니들의 눈길을 확 끌어당긴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김성주 아나운서가 세 살인 아들 민국이를 위해서 월 12만원을 15년간만 투자를 해주면 4,766만원의 종자돈이 만들어져, 이 돈으로 향후 32년간 복리로 굴리면 10억이 된다는 것이다(연복리 10% 가정). 월

12만원으로 10억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내 아이를 위해 월 12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리' 상품이고 '연 10%'의 수익률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어떤 상품이 이런 조건에 합당할까?

은행의 예금이나 저축은 단리로 이자를 주고 있고 이자도 연 4% 대이기 때문에 10억을 만드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각광받는 것이 어린이 펀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전문가가 우량기업 주식을 선별하여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이 가능하다. 몇몇 대표 상품들의 수익률은 연 20%를 넘어선다. 자녀의 대학 자금, 유학자금, 결혼자금 등 장기적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최

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펀드는 어린 시절부터 돈 관리요령을 알려주고, 교육 자금 마련, 경제교실 참여, 보험가입 등 다양한 혜택이 많아 일석이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한 보험사에서는 어린이가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용 변액보험을 출시했는데 가장의 유고시 사망보험금을 교육자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펀드 유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등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어린이 펀드나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대부분 5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장기 상품이기에 때문에 무엇보다

다 우수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 선택하면 훗날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신뢰도와 과거의 펀드 운용실적 등을 꼼꼼히 체크해 가입해야 한다. 주변에서 전문가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실수를 막는 지름길일 수 있다. 올해부터 보험설계사들도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증이나 펀드판매권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보험설계사를 통해 상품을 추천받는 것도 좋다. 또 한 가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크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야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원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공제를 받지 않거나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알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공제요건

근로자(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 장모도 해당된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위에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를

없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중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자녀가 각각 공제할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자에서 공제해 주며,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해 준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 되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입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은행 예금이자 등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드리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으도록 하자.

공제대상이 한 사람 늘 때마다 최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6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 세금을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제품 취출작업 중 Foot Switch를 밟아 프레스에 접촉

▲재해발생 개요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열간단조 프레스로 작업하던 중 제품이 취출부 컨베이어에 끼어 취출이 원활하지 않자 재해자가 이를 제거하려고 차공구를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려는 순간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발 스위치를 밟아 프레스의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상하 금형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자간 의사전달 미흡
프레스 공동작업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재해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서로 국적이 달라 작업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
나. 장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 실시
프레스에 제품이 끼어 취출 하는 작업은 작업자의 상체가 금형 사이에 들어가 협착 재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 전원을 차단하여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운전중인 상



재해발생상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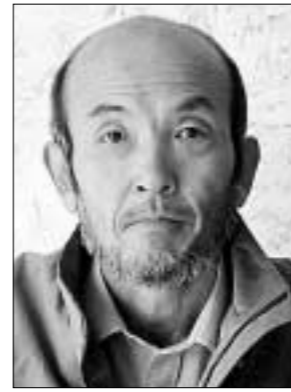
태에서 제품 취출 작업을 하였고.

▲동중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기계의 정비, 청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운전정지 시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발 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03 목신랑콩각시

기능성 콩요리 · 목요리 전문점



대표 박춘범

도토리 · 청포 · 메밀 · 감자 · 고구마 전분 공장을 약 26년 동안 운영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지난 10월 20일 문을 연 목신랑 콩각시(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353 대표 박춘범).

행복을 나눠먹는 그 집, 그 맛, 그 추억이란 문구가 돋보이는 목신랑 콩각시는 도토리묵과 두부를 이용해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식단에 제공되고 있는 모든 음식은 질 좋은 재료사용으로 맛과 신선함에서 뒤질게 없는 자신 있는 상차림으로 고객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음식점은 음식 맛이 좋아야 살아

들이 원하고 있는 퓨전식과 한방식이 함께 어울린 건강식을 제공한다"는 박 대표의 노력에서 얻어낸 값진 아이템이다.

목신랑 콩각시는 현재 목요리 콩요리 부문에서 20여 년 넘게 근무해온 베테랑을 메인 주방장으로 채용해 까다로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음식점은 음식 맛이 좋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어 안고 있는 광릉 숲 인근에 자리한 직동리의 풍경과 상차림에 놀라고 음식 맛에 반한다는 목신랑 콩각시의 주메뉴는 다음과 같다.

다이어트식 도토리 묵밥(6천 원), 속 풀이에 좋은 열근 순두부(5천 원), 자연의 향기가 묻어 나가는 목썩와 비빔밥(6천 원), 두부, 아재, 팥, 느타리, 쇠고기가 함께 어울리며 술안주로 그만인 두부버섯전골(중)(1만 8천 원), 두부버섯전골(대)(2만 5천 원), 목신랑 콩각시의 대표 음식인 정식(9천 원)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 밖의 메뉴로는 녹두 빈대떡(4천 원), 해물 묵전(8천 원), 도토리 무침(8천 원), 두부 자갈자갈(1만 원) 등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목신랑 콩각시를 찾아온 고객이 맛있다고 다 음에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을 들을 때 고객의 칭찬을 열심히 노력하려는 체적으로 삼고 있다는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노력이 절실 국내산 콩 · 질 좋은 쌀만을 식단에 제공

남을 수 있다"며 "다년전 전분 공장을 운영하며 원료를 취급하다보니 요리까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되었다"고 타 업체보다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박 대표의 노력으로 찾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국내산 콩백 가마를 수백 개 해놓고 고시시까리(아까바리)버백 가마를 포천 영농작목반에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다. 벼는 당일 날 정미기를 이용해 바로 쪄은 쌀로 밥을 지어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박 대표는 1층에 수목원 식품(제인 사업부)을 설립해 국내산 콩과 팥, 솔잎 등 우리 몸에 좋은 원료를 이용, 엑기스를 추출해 건강식 두부와 도토리묵을 만들어 전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객

박 대표는 전)소홀음 이장협의회장, 현)광릉 숲 보존대책위원회대표, 현)영삼주민주방방방대장, 현)소홀농협 수석이사로서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박 대표의 값진 마음이 돋보이고 있다.

목신랑 콩각시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찾아오는 길은 고모리를 지나 직동리에서 광릉 숲 도로와 만나기 전 끝 부분 우측이며 서울에서는 광릉 숲을 지나 직동리 방향으로 우회전, 다리 건너 바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Tel 031)544-7988 ~ 9 Fax 031)532-9998 HP 011)285-7988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행복을 나눠먹는 그 집, 그 맛, 그 추억이란 문구가 돋보이는 목신랑 콩각시는 도토리묵과 두부를 이용해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개혁법안에서 나온 기초연금제도는란 무엇인가?

돈 없이 가입 못해 노후에 혜택 못 받는 계층 위해 일정액 지급 재원 조달 문제로 더 연구 필요

기초연금제도는 한나라당이 지난 2004년9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현행 일원형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형 제도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방안이다. 현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후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는 것이 기초연금제도다. 정부에서 소득이 전혀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세금을 로 연금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현재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월 3만 5천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연금액도 월

20만~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즉,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의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조세 등을 통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논란의 가장 핵심은 소득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근로 소득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점. 만약 올해 시행된다면 예상금액은 약 11조원으로 여기에 최소생활보장, 교통수당, 경로수당 등 타 급여 감소비용을 감안하면 9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 031-544-8700